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내용의 변천 연구 - 감상, 이해, 기악을 중심으로*

현 경 실**

본 연구의 목적은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과과정별 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악 감상과 이해, 그리고 기악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국악교육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교과서를 2,3 차에서는 두 개의 교과서를, 나머지 교육과정에서는 각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1차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 등 각 영역에서 국악을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고, 지도유의 사항에서 다시 국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국악 이해영역에서는 국악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국악기, 분류, 음계, 장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악영역의 악기 교육은 점점 자세히 소개하고 연습곡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풍물놀이 등 이론으로 하던 것들도 이론위주의 소개에서 벗어나 직접 연주하는 활동으로 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 주제어: 음악교과서, 음악교육과정, 국악교육, 국악감상, 국악이론교육

차 례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연구결과

1.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감상과 이해 영역의 변천
2. 고등학교 교과서 이해 영역의 변천
3.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 영역의 변천
4. 고등학교 교과서 기악 영역의 변천

IV. 결론 및 제언

* 이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2014년도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연구과제 번호 2014-2-11-080 /1)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kyungsil@sungshin.ac.kr)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악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전통음악이 많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음악과 대중음악에 밀려 그 설 자리를 잃었다. 학교의 음악교육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 다행히도 해방 후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음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으며, 음악시간에 국악에 대한 교육도 늘어났다.

특히 197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은 전폭적으로 늘어났다(서한범, 2008). 교육과정에서도 점차로 국악이 강조되었고 음악교과서에서도 점차로 국악의 비중이 늘어났다(현경실, 2013, 2014, 김향미, 2003. 권덕원, 2004. 김효선, 2008. 문미정, 2010). 특히 1990년대의 6차와 7차 교육과정에는 교과서의 국악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현경실, 2014, p.40)<표 1>. 음악교사를 뽑는 중등 임용고시에서도 국악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도 국악과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1> 음악교과서의 국악비중의 변화

차시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초등학교 ¹⁾	3.6%	2.3%	5.0%	7.4%	7.8%	21.0%	24.5%	26.9%	- 2)
고등학교	0.8%	6.7%	11.4%	13.7%	13.1%	19.1%	27.2%	21.7%	24.7%

국악의 내용이 많아지면서 가창위주였던 국악파트도 기악, 감상, 이해 등의 각 영역으로 골고루 나누어지는 형상이다. 현경실(2014)이 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악부분을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감상의 영역은 차시별로 뚜렷한 성향이 없었으며, 가창 영역은 2, 3차 교육과정에서 65% 이상이던 것이 교과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24.4%까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기악 영역은 0%에서 24.6%로 꾸준히

1) 초등학교의 국악비중도 현경실(2013, 99쪽)의 연구에서 인용.

2) 2009년 개정 교과서는 초등학교에 경우 2014년도부터 사용되었으며 이 연구 결과는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이라 데이터 없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현경실 2014, 41쪽) <표 2>.

<표 2>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의 영역별 비중의 변화

교육과정	가창	감상	기악	창작	이해	합계
1차	0.0%	0.0%	0.0%	0.0%	100.0%	100%
2차	65.2%	24.8%	0.0%	0.0%	10.0%	100%
3차	67.7%	8.1%	5.2%	0.0%	19.0%	100%
4차	54.9%	18.7%	5.2%	2.3%	18.9%	100%
5차	43.1%	26.1%	1.2%	0.6%	29.0%	100%
6차	38.1%	19.1%	11.6%	0.4%	30.9%	100%
7차	38.9%	23.0%	14.8%	4.8%	18.6%	100%
2007 개정	38.6%	11.2%	15.7%	0.0%	34.5%	100%
2009 개정	24.4%	17.3%	24.6%	3.3%	30.5%	100%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수업의 대부분을 교과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는 교과서의 내용이 곧 교육과정의 내용이 될 만큼 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과서의 질을 높여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악교육의 중요성과 교과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국악의 경우 이제부터는 국악의 양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그 질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연구의 지속적인 연구이다. 첫 번째 연구는 국악 가창곡의 변천을 조사한 연구이었으며, 본 연구는 이것에 이은 두 번째 연구로 가창을 제외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감상과 이해 그리고 기악을 중심으로 국악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과과정별 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악 감상, 이해 영역 그리고 기악영역을 분석함으로써 국악교육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둘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이해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룬 국악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감상과 이해 영역의 내용과 학습활동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넷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기부분의 교육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서는 제 1차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행된 고등학교음악교과서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서를 확보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차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왜곡 되었을 수도 있다.

둘째, 국악의 이해, 감상의 분석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것만을 포함하였고, 가창 등 다른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 애매한 것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영역 한곳으로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9차의 교육과정에 걸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의하면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총 77종이다.³⁾ 그 중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교과서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소장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으로는 1차 교육과정 1종, 2차-3차 교육과정 2종, 4차-2009 개정 교육과정 각 3종씩 총 23종의 교과서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소장되어 있는 교과서가 1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 1종, 2차와 3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2종 밖에 없었고, 4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교과서 3종씩 선정하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는 그동안 필수 공통 과정이던 ‘음악’이 없어지고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은 선택으로 바뀌었다. 음악을 선택한 학생들은 ‘음악과 생활’과 ‘음악과 진로’를 교과서로 쓰게 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음악과 생활’을 처음에 선택하여 쓰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음악과 생활’ 중 임의로 3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3종의 음악교과서와 출판사 및 저자는 <표 3>과 같다.

<표 3> 고등학교 교과서 중 연구 대상 23종 교과서의 출판사와 저자

교육 과정	출판 년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1차	1956	고등음악통론	국민음악연구회	김형근
2차	1964	고등음악	예술교육 출판사	김성태
	1968	새음악 I	현대음악출판사	정희갑, 김성남
3차	1981	인문계고등학교 음악	교문사	김성태, 이성만
	1981	인문계고등학교 음악	동아출판사	김갑, 남상훈
	1984	고등학교 음악	교학사	정희갑, 이해식
4차	1984	고등학교 음악	태림출판사	최춘근, 이용희
	1984	고등학교 음악	화학사	이상근, 이연도
	1990	고등학교 음악	금성교과서(주)	안형일, 이남수, 이준기
5차	1990	고등학교 음악	동아출판사	정세문, 이홍수, 황병훈, 정미령
	1990	고등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오동일
	1996	고등학교 음악 I	법문사	이연도, 백기현, 허기식
6차	1996	고등학교 음악 I	세광음악출판사	오동일, 고춘선
	1996	고등학교 음악 I	현대음악출판사	신귀복, 강덕원

3) 각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수는 1차 7종, 2차 9종, 3차 14종, 4차 5종, 5차 8종, 6차 13종, 7차 8종, 2007개정 3종, 2009개정 10종 등 총 77종이다. 이중 2009개정 교과서는 고등학교 음악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면서 제목이 ‘음악과 생활’이 되었다.

교육 과정	출판 년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7차	2002	고등학교 음악	도서출판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2002	고등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고준선, 홍종건
	2002	고등학교 음악	현대음악출판사	윤경미, 문진
2007 개정	2011	고등학교 음악	(주) 금성출판사	양종모, 정태봉,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2011	고등학교 음악	박영사	주광식, 김주경, 최은아
	2011	고등학교 음악	도서출판 태성	주대창, 정은경, 홍수진, 최종철
2009 개정	2014	음악과 생활	(주) 금성출판사	김용희, 현경실, 채은영, 김지현, 이세경
	2014	음악과 생활	(주) 미래엔	장기범, 김경태, 송무경, 임원수, 조성기, 홍종건
	2014	음악과 생활	(주) 지학사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방경준, 김해진, 엄숙용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교과서 분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첫째, 국악의 이해, 감상 영역의 분석은 ‘이해’, ‘감상’으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것만을 포함하였고, 가창 등 다른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 애매한 것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영역 한곳으로만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가창 중심의 수업에서 어떤 곡을 감상하는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감상활동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교과서에 ‘감상’ 혹은 ‘이해’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즉 교과서의 영역구분을 존중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영역구분이 비합리한 것은 어떤 내용이 실제로 나오는가를 조사하여 ‘감상’과 ‘이해’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감상’과 ‘이론’을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했다 하더라도 그 구분이 애매한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감상’이라고 영역구분을 해 놓았으나 감상 활동이나 심지어 곡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이해’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해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도 곡이름이 언급되었거나 악보를 제시하였으면 ‘감상’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관련곡을 감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해영역과 감상영역

역에 동시에 넣었다. 예를 들어 특정시대의 국악역사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감상곡을 중요하게 다룬 교과서는 국악사 ‘이해’ 영역에 넣었으며 곡별로 따로 ‘감상’ 영역에도 포함시켰다.

셋째, 단순히 악기에 대한 설명과 연주방법의 소개만 있고 실제 연습곡이 없으면 ‘기악’영역에 넣지 않고 ‘이해’의 악기론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교과서별로 소개된 횟수를 계산할 때 소개하는 양이 다르더라도 1회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곡을 소개하더라도 1/3쪽을 할애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4쪽이나 할애한 교과서가 있었다. 이럴 경우엔 같이 1회로 계산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4년 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된 이래 1963년과 1973년, 1981년, 1987년, 1992년, 1997년에 한 차례씩 개편되었고, 2007년과 2009년에는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 제 7차 교육과정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 8번 개정되었다.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우리 전통음악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2차 교육과정에서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음악과의 목표로 되어 있으며, 3차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악문화를 이해시켜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목표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4차 교육과정부터는 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영역별 지도목표(내용)에서는 감상, 기악, 창작, 이해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국악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있다. 각 영역에서 국악을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차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보여진다. 자세한 것은 <표 4>에 나타내었다.

셋째, 지도상 유의점에서는 2차 교육과정부터는 우리나라 음악을 많이 다루어 줄 것을 권장하고 있고, 6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요는 장구 장단에 맞추어 시김새를 넣어 불러보고 정간보도 읽도록 언급하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악학습에서의 신체표현, 가·무·악의 통합교육, 창법지도 방법, 구음 사용, 국악기 반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표 4> 고등학교 교육과정별 각 영역 지도내용

교육 과정	영역별 지도내용
1	· 우리나라 음악 및 서양 음악의 음악사의 지식을 얻도록 함 · 취주악, 중주의 연주 기능을 높임 · 민족 음악에 관련하여 국악, 동양 음악의 구성과 독자의 미, 연주 형태를 이해하고, 그 음악을 감상 · 우리나라 음악 이론도 연구
2	·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 나라의 음계로 이루어진 가창 교재나 기악 곡조를 익숙하게 시주 · 기악풍, 민요풍, 및 독주곡풍 등의 곡조를 지음 ·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3	· 악기(우리나라 악기 포함)의 연주 기능을 체득 -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나라 음계로 이루어진 악곡 시주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 합주 등 우리 나라의 전통 음악 감상 · 우리 나라의 전통 악기 이해
4	· 관현악에 쓰이는 악기 및 여러 민속 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파악
5	·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 · 여러 가지의 우리 나라전통 음악을 감상 · 일반적인 우리 나라의 전통 악기 이해하고 감상
6	· 정간보를 보고 연주하기 · 여러 장단을 치기 · 창극, 오페라, 오라트리오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악곡을 감상하기 · 제례악, 줄풍류,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푸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 · 전통 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
7	· 민요 음계 · 시김새 ·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극,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2007	· 여러 가지 장단
2009	X

2.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이해 영역의 변천

이해의 영역에는 국악의 중요한 이론들이 다루어져 있었다. 교과서 23권 중 이해의 영역에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은 국악사로 19회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소개된 것은 국악기, 국악의 분류, 음계, 장단의 순이었다. 국악의 분류는 정악과 민속악, 독주곡과 합주곡 등 국악을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다<표 5>. 국악사는 1차를 제외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나타날 만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상고,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었다. 교과과정의 개정이 거듭될수록 국악사에 사진이 많이 삽입되고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로 악곡의 예도 자세히 보여주며 감상 활동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5>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이해 영역의 내용과 변천

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계
국악사		1	1	2	3	3	3	3	3	19
국악기			2	2	3	3	2	1	1	14
국악의 분류			1	1	3	2	3	1	1	12
음계	1	2	1	2	2	1	2	1		12
장단		1	2	2	3	1	1	1		11
기보법(정간보)			1	1	1	2	3		1	9
율명			1	1		2	1			5
형식						1	3			4
시김새						1		1	1	3
창작국악						1			1	2
음악가						1				1
합계	1	4	9	11	15	18	18	8	8	92

국악기의 소개는 3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몇 개의 국악기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서 시작하나 현대로 내려올수록 연주방법에 따른 분류나 8가지 재료로 국악을 소개하는 우

리나라 전통의 팔음분류법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음계에 대한 소개는 1차부터 꾸준히 나오는데 그 소개 방법과 내용이 교과서 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초기의 교과서에서는 정악음계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많았는데 교과과정이 개정을 거듭할수록 음계에 대한 것은 각 지방별 민요음계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별 민요음계는 감상의 ‘민요’부분에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민요의 시김새도 자세히 소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감상 영역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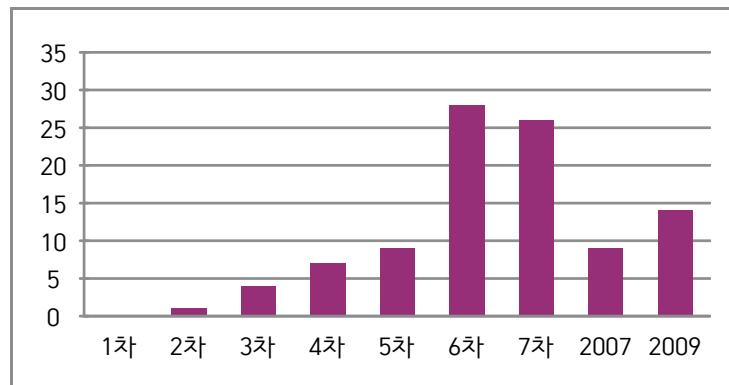
가. 정악

‘감상’ 영역에서는 다음 <표 6>에서와 같이 정악곡을 소개하고 있었다. 제례악은 물론 수제천, 여민락 등 대부분의 중요한 합주곡과 가곡, 가사, 시조의 성악곡까지 다양하고 소개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곡의 종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부터는 정악의 소개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6> [그림 1]. 특히 성악곡의 가곡, 시조의 소개가 7차 교육과정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감상영역이었던 성악곡들이 가창영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표 7>.

<표 6> 교육과정별 정악 감상곡

영역	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계
종합 예술	종묘제례악				1		2	3	1	2	9
	문묘제례악			1			1	2		1	5
	경모궁제례악							1			1
합 주 곡	수제천				1	1	3	2	1	1	9
	여민락				1		1		1	1	4
	영산회상					2	2	1	1	2	8
	천년만세					1	1				2
	도드리								1		1
	낙양춘						1		1		2
	보허자						1	2	1		4

영역	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계
	취타				1		2	1		2	6
	대취타				1	1	2	1		2	7
	서경별곡 ⁴⁾						1				1
	염양춘									1	1
	풍입송						1				1
병주곡	생소병주							1			1
	단소, 양금병주						1				1
독주곡	자진한잎						1	1			2
	청성자진한잎					1	1	2		1	5
성악곡	가곡			2	1	1	2	3	1	1	11
	가사						2	3	1		6
	시조		1	1	1	2	3	3			11
합계			1	4	7	9	28	26	9	14	98



[그림 1] 교육과정별 정악

4) 고려시대의 속요로 지금은 연주되지 않는 곡이다.

<표 7> 교육과정별 가창곡의 종류

장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계
민요		6	30	19	16	20	23	21	21	156
시조			1		1	1	1	1	2	7
가곡							1	2	3	6
판소리							2	1	3	6
잡가									1	1
창작국악곡 ⁵⁾			1	2		2	5	5	3	18
합계	0	6	32	21	17	23	32	30	33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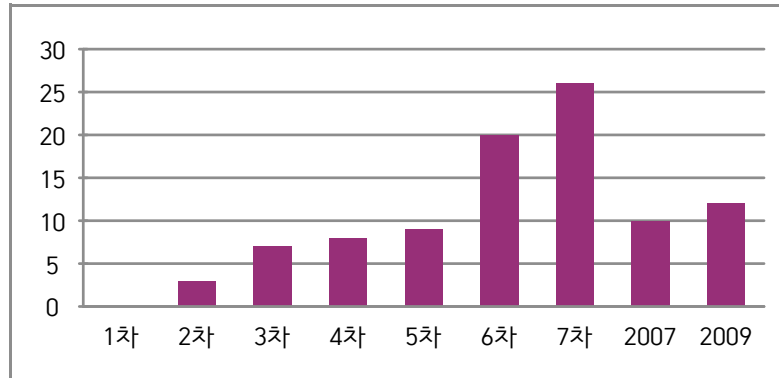
나. 민속악

민속악 중에서는 민요와 판소리의 소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풍물놀이, 산조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그리고 5차부터는 국악 창작곡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7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민속악의 감상이 줄었다. <표 8> [그림 2].

<표 8> 교육과정별 민속악

영역	분류1	분류2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계
민속악	종합	무악						1	1			2
		풍물놀이		1	1	2	2	3	2	2	2	15
	합주곡	시나위				1		2	3			6
	성악곡	민요			1	2	3	3	3	2	3	17
		판소리		1	2	2	2	3	3	2	2	17
		잡가						1	3			4
		가야금병창						1				1
	독주곡	산조		1	2	1	1	2	3	1	1	12
	기타	성악			1			2	3	1	1	8
		춤							2	1		3
	창작곡	침향무 외					1	2	3	1	3	10
	합계		0	3	7	8	9	20	26	10	12	95

5) 국악풍으로 현대에 작곡된 창작곡을 말함. 보통 장단을 이용하여 반주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창작곡으로는 ‘산도깨비’, ‘가시버시 사랑’, ‘오 금강산’ 등이 있다.



[그림 2] 교육과정별 민속악

판소리는 교과서 23권 중 17권에서 나타난 민속악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장르이다. 초기에는 판소리를 음악의 한 장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판소리의 특정대목을 감상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거기다가 창극도 함께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상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부터는 가창곡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표 7>. 점점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장르의 하나이다. 교육과정별 판소리의 소개 내용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교육과정별 판소리의 학습내용

차시	출판사	쪽수(양)	제목	내용
2	현대음악	119(1쪽)	판소리	설명, 춘향전 중에서 악보 2줄
3	교문사	109(1/3쪽)	판소리 춘향가	설명, 신연맞이 악보 4줄
	동아	29~30(1쪽)	판소리	설명, 춘향전 중에서 악보 2줄
4	교학사	148(1쪽)	우리나라의 전통 성악	설명, 범피중류 악보 2줄
	화학사	91(1/3쪽)	판소리	설명, 춘향가(신연맞이) 악보 2줄
5	금성	64(1쪽)	판소리 '심청가'	설명, 사진, 범피중류 악보 2줄
	동아	86(1/3쪽)	판소리 <춘향가>	설명, (신연맞이) 2줄
6	법문사	176(1쪽)	판소리 <춘향가>	판소리 설명, 구성 요소, 사진, '방자가 춘향 불러내는 대목' 악보 2줄
	세광	123(2/3쪽)	판소리	설명 및 사진, 흥부가 '제비 몰이' 악보 2줄, 춘향가 '사랑가' 악보 한줄

차시	출판사	쪽수(양)	제목	내용
	현대	100(2/3쪽)	전통음악감상 II	판소리 특징 설명
		100(1/3쪽)	전통음악감상 III	심청가 중 범피중류 감상 및 설명, 악보 한줄
7	세광	118~119 (2쪽)	뮤지컬/창극	창극, 마당놀이 설명, 사진, 뮤지컬, 창극, 판소리, 마당놀이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121(1쪽)	판소리 '춘향가'	악곡 설명, 사랑가, 남원경치, 이별가 각각 한줄 악보, 판소리와 오페라 구성 요소 비교
	태성	122(1/2쪽)	판소리	설명 및 사진
		133(1/3쪽)	한중일의 극음악	한국의 판소리와 창극 설명
		159(1/2쪽)	판소리/민속 기악	판소리와 단가 설명, 사진
	현대	118(1쪽)	판소리와 창극	판소리와 창극 각각 설명 및 사진, 심청가 '범피중류' 악보 한줄
2007	금성	129(1쪽)	판소리	설명, 판소리의 장단, 춘향가 '적성가', 심청가 '인당수', 수궁가 '용왕 특별', 흥부가 '화초장', 적벽가 '공명의 높은 재주' 각각 악보 한줄씩
		130(1/2쪽)	창극과 탈춤	창극 설명과 사진
	박영사	110~112 (3쪽)	판소리	판소리의 구성 요소, 시대에 따른 변화, 유과 알아보기, 흥부가 '박타령', 춘향가 '쑥대머리', 적벽가 '적벽대전', 심청가 '심 봉사 눈뜨는 대목', '범피중류', 수궁가 '토끼 세상 나오는 대목' 감상
		113(1쪽)	창극	설명, 판소리와 창극 비교
2009	금성	240~241 (2쪽)	판소리	설명, 판소리의 주요 요소, 화초장타령 감상, 화초장타령 악보
		242(1/2쪽)	여러 나라의 극음악	우리나라의 창극 설명
	미래엔	92~93(2쪽)	동호, 어머니 뛸을 불러내는 대목	전체악보, 판소리와 창극 공연 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풍물놀이는 총 15권의 교과서 소개되어 있었다. '농악' 혹은 '사물놀이'로 소개된 것도 풍물놀이에 포함하였다. 초기의 교육과정에선 '농악'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있었고 현대로 올수록 사물놀이의 소개가 많았다. 또, 그 양도 많아지는 추세였으며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서 직접 연주해보는 경향으로 가고 있었다. 2007년, 2009년 개정 교과서에는 '감상'중심이라기보다는 '기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교과서별 할애하는 양도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다음 <표 10>은 차시별 교과서의 풍물놀이의 내용이다.

<표 10> 교육과정별 풍물놀이의 학습내용

차시	출판사	쪽수(양)	제목	내용
2	현대음악	118(1/2쪽)	농악	설명, 많이 쓰이는 리듬형
3	동아	29(1/3쪽)	농악	설명, 많이 쓰이는 리듬형
4	교학사	151(2/3쪽)	농악	설명, 전복농악 악보 4마디, 사진 한장
	화학사	95(1/2쪽)	농악	설명, 장단악보, 사진1장
5	금성	48(1쪽)	사물놀이	감상의 요점, 설명, 칠패, 육패, 자진가락 리듬악보
	세광	67(1/2쪽)	농악	설명, 장단악보, 사진1장
6	법문사	132(2/3쪽)	사물놀이	설명, 악기 설명, 1채가락, 2채가락, 굿거리 악보
		175(1/2쪽)	풍물놀이	설명, 장단악보, 사진1장
		104-105(1/2쪽)	풍물놀이	설명, 사용악기
	세광	107-109(3쪽)	사물놀이	설명, 사물/풍물놀이 비교,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 악보, 장단 변형 악보, 연주방법 사물놀이 연주곡(리듬악보)
		현대	19(1/2쪽)	풍물놀이
7	태성	52-53(2쪽)	웃다리 풍물	악곡해설, 감상요점, 4가지 악기 악보와 구음, 변주방법
	현대	82-83(2쪽)	풍물놀이 연주하기	설명, 연주하기, 영남 놀이가락 연주 악보
2007	금성	72-73(2쪽)	사물악기 연주하기	설명, 사물악기 연주법, 인사굿, 양산도, 삼채, 이채 연주하기(정간보에 구음보)
2009	태성	146-147(2쪽)	사물놀이	사물/풍물놀이 비교, 연주법 구음보, 영남풍물가락 연주하기(정간보와 구음보)
		155(1쪽)	풍물놀이	설명, 여러 가지 진법
	금성	156-159(3쪽)	사물놀이	설명, 악기 연주방법과 구음, 사물놀이 연주하기, 인사굿, 양산도, 덩더꿍이, 동살풀이, 별달거리, 창작하기 (정간보에 구음보)
	미래엔	148-149(2쪽)	사물놀이	목표, 악기연주법, 별달걸이 연주하기(리듬, 구음보)

4. 고등학교 교과서 기악영역의 변천

또 연주를 직접 할 수 있게 한 악기를 자세히 소개하는 ‘기악’ 영역은 4차 교육과정부터 나오는데, 6차 교육과정에서 6가지 악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7차에서는 특별히 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악’파트가 11회로 가장 많이 나온다 <표 11>.

<표 11> 기악에 나타난 악기

악기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계
가야금				2	3	3	2	2	3	15
단소				1	2	3	3	2	1	12
소금							2	2	3	7
피리				1	1	1				3
대금						2				2
장구				1	3	1	3	1	2	11
소리북							1		1	2
합계	0	0	0	5	9	10	11	7	10	52

기악부분에서는 연주악기로 가야금이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다. 현대로 올수록 연습곡의 양이 많아지며 구체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차 교육과정의 화학사는 1/3쪽을 할애하여 가야금의 조현법, 가야금 악보의 부호 설명, 연습곡으로 아리랑이 나와 있다. 반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악부분의 가야금은 총 4쪽이나 할애하고 있는데 가야금의 구조와 명칭, 주법, 줄 고르기, 오른손 주법 연습하기, 왼손 주법 연습하기와 연습곡으로 ‘아리랑’과 가야금 2중주 ‘캐는 변주곡’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단소와 장구 등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소금은 7차 교육과정부터 많이 소개되고 있다<표 12>.

<표 12> 가야금 소개의 예

4차 화학사 52쪽(총 1/3쪽)

무려나라음악 7 기악 2

가 야 금

가야금의 조현법은 삼악 조현법과 화조(일악 악) 조현법이 있다. 네 번요. 조현법은 아래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다음 문기법을 연습하여 (아리랑)을 연주하여 보자. 그 위에 악보에 있는 것을 가락도 맞추어 보자.

1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2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3 = 오른손가락으로 뜯는다. 4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5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6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7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8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9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10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11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12 = 왼손가락으로 뜯는다.

(일반적으로 2는 거임하지 않는다.)

아 리 랑

세마치 (♩ = 72 ~)

Fine

D.S.

국악교육의 나아갈 방향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299 -

화, 짜임새, 형식 등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로 나타나 있다. 국악부분은 ‘장단과 가락’정도이었다. 물론 썸여림, 빠르기, 음색 등등은 국악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악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보니 교육과정의 국악부분은 서양음악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

둘째, 국악 이해영역에서는 국악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국악기, 분류, 음계, 장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악사는 초기보다 현대로 올수록 교과서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국악기는 현대로 올수록 악기 연주 중심의 소개를 하고 있었다. 음계에 대한 설명은 초기보다 현대로 올수록 그 설명이 줄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창이나 감상 등 실제음악과 연결시켜 소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국악의 이해나 감상 영역 모두 6차와 7차의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그 양과 횟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이후에는 그 다양성이나 소개의 횟수에서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악이나 민속악의 소개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도 2007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저하게 줄었다. 대중음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국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이행 영역에서 정악 성악곡의 소개가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감상영역이었던 판소리, 가곡, 시조 등 성악곡들이 가창영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경향이며 가속화되어야 한다. 아직 현장에서 교사들은 시조나 가곡을 가창으로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넷째, 기악영역의 악기 교육은 점점 자세히 소개하고 연습곡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풍물놀이 등 이론으로 하던 것들도 이론위주의 소개에서 벗어나 직접 연주하는 활동으로 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한 교과서에서 할애하는 양도 한 쪽도 안 되던 것이 많게는 네 쪽 이상으로 늘었다.

2. 제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국악의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서양음악에 비해 24.7%인 국악 비중이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정점을 찍고 그 2007년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국악의 비율이 줄고 감상곡도 정악 민속악 모두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표 7, 8>. 국악에 대한 관심이 정점을

적고 내리막을 걷고 있다. 반면에 대중음악에 대한 비중은 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도를 고려할 때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악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악이 줄어들지 않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음악의 이해의 영역은 반드시 실제음악과 관련지어 학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악기, 장단, 기보법, 율명 등은 아직도 ‘이론’ 위주의 설명이 많다. 이런 부분은 점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별 중학교 교과서의 분석도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 46호 별책 (단기 4288년(서기 1955년) 8월 1일 제정).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문교부.
- 2차 교육과정. 문교부 (1967).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 3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 (1974. 12. 31)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 4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 5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3.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 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 (1992.10.30.)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7.12.30.)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2]. (2007.2.28.)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2]. (2011.8.9.)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권덕원 (2004). 한국음악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음악교육연구**,
27, 27-64.
- 김향미 (2003).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문미정 (2010).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 변천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
자대학교.
- 이종국 (2001). **한국 교과서 출판 변천연구**. 서울: 일진사.
- 이종국 (2004). **한국 교과서상**. 서울: 일진사.
- 허 강 (2004).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서울: 일진사.
- 허지연 (2008).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감상 영역의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
신여자대학교.
- 현경실 (2013).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내용 변천 연구. **예술교육연구**
11권 2호. 한국예술교육학회.
- 현경실 (2014).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가창곡의 변천
연구. **예술교육연구** 12권 3호 한국예술교육학회.

ABSTRACT

Analysis of Korean Music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in Highschool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National Curriculums

Kyungsil Hyun

In this paper, we present directions of Korean music education to improve our textbooks, by analyzing sections of Korean music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up to three highschool textbooks which follow the first national highschool curriculum through the present 2009 national curriculum. One textbook was analyzed from the first curriculum, two from the second and third, and three from the rest. Especially we present basic information needed to improve the sections of Korean music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highschool curriculums from the first to the 2007 revision require the inclusion of Korean music in the sections of singing, instrument, composition,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Moreover, the guideline specifically emphasizes including Korean music as much as possible. Second, in the section of Korean music understanding, the textbooks treat Korean music history the most. Then Korean music instruments, classification, scales, and jandan are treated in that order of importance. Third, the textbooks treat Korean music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the most in the 6th and 7th curriculums, and the textbooks consider Korean music less in variety and frequency of treatment in the following curriculums. Fourth, the textbooks tend to treat instruments in the form of direct performance rather than in the form of theoretical introduction.

Key words: music curriculum, music theory education, music appreciation, music text book, Korean traditional music.

투고일: 2015년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28일(11월 5일), 게재확정일: 11월 7일